역대급 폭염에…광주은행 '무더위 쉼터' 역할 톡톡

2018년 은행권 첫 시도 이후 지역민의 '도심 속 피서지' 각광
오전 9시~오후4시 110개 영업점서 운영…부채·생수 무료 제공
폭염 취약계층 등 누구든지 이용 가능해…9월 30일까지 운영

2일 광주시 동구 학동의 광주은행 학동출장소에서 광주은행 직원이 고객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2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은행 학동출장소' 문을 열고 80대 노인이 들어왔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6도. 노인의 얼굴엔 무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힘겹게 자리를 잡아 앉은 그에게 광주은행 직원이 다가오더니 시원한 생수 한 병과 함께 부채 하나를 건넸다. 이를 받아든 노인은 "아이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라며 감사를 전한 뒤 부채를 부치며 더위를 식혔다.

A(82)씨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탓에 에어컨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된다"며 "한낮엔 선풍기를 켜도 후덥지근한 바람이 나온다. 더위를 피해 은행을 찾아왔는데, 폭염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은행 학동출장소'를 찾아온 고객들은 약 250여명에 달했다. 점심시간임에도 20여명의 고객들로 붐비는 등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70세를 넘긴 노인들이 대다수였다.

광주은행 직원은 "평소 내방고객은 150여명으로, 오늘은 무더위를 피해 평소보다 100여명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이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한 '무더위 쉼터'가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더위 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 무더위 쉼터는 광주·전남지역 110개 모든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다. 영업시간 내(오전 9시~오후 4시)에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함께 부채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은행 업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지난 2018년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이후 매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도 노년층 등을 포함한 지역 내 폭염 취약계층과 지역민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은행 일선 지점들은 광주·전남지역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점포가 임차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1층보다 높은 층으로 이전하고 점포를 줄이고 있지만, 광주은행은 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광주은행 점포 가운데 91곳(83%)이 1층에 위치해 있는데, 광주은행은 임대료 부담에도 지역민의 편의와 밀착경영을 위해 점포 위치를 1층으로 고집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55년 간 지역을 지켜온 향토은행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와 함께 폭염이 일상에 파고 들었다. 야외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시원한 생수와 함께 더위를 식히시기를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힘을 더함과 동시에 지역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발 벗고 나서는 향토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잇단 은행 직원 횡령…부동산 PF 자금 관리 긴급 점검

국민·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 대상…경남은행 562억 횡령 확인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PF 대출과 관련된 직원의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도 경남은행 직원의 PF 대출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면서 "원인 규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은행은 개선하도록 하고 엄중 제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 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살살이 살펴볼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해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직원의 횡령 사고가 이미 작년 이전에 발생했고 계속 은폐하다 보니 적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경남은행이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자체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전, 490억원 규모 도미니카 건설사업 계약

배전변전소 3곳 신설·보강

한국전력은 1일(현지 시각) 3815만 달러(약 49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변전소'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도미니카의 수도 산토도밍고 내 배전변전소 3개소를 한전이 EPC 방식으로 신설, 보강하는 계약이다.

한전은 계약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글로벌 5개 기업과 경쟁해 전체 변전소 4개소 중 3개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이 도미니카 전력설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건 5번째로 이번 계약을 통해 누적 수주액 2억 달러(약 2569억 원)를 달성했다.

한전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기업의 도미니카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인근 중남미 국가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현찬 본부장은 "에너지효율화, 배전자동화 등 에너지신사업과 발전사업 분야의 오랜 파트너인 도미니카을 중남미 거점국가로 삼아 미주지역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가 냉장고 문 설치 지원

정부, 올해 100억 투입

정부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소상공인 지원에 올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이들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거나, 새 냉장고로 바꿀 때 설치 면적(㎡)당 소요 비용의 약 40% 수준인 25만9000원을 지원한다.

희망 사업자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약 1만9000대의 냉난방기 교체를 목표로 한 이 사업 개시 이후 접수 건수는 4150건을 넘었다. /연합뉴스

수해민 힘내세요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달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주민들의 조기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AI 창업기업 선배와의 대화'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홍주)는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광주라운지에서 '인공지능(AI) 창업기업 선배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AI 본인 인증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인 ㈜고스트패스와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AI 입주기업 간 기업 성장 과정, 창업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지역 청년창업가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8년 설립된 ㈜고스트패스는 중진공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졸업(2020년)기업으로, 사관학교 졸업 이후 중진공에서 정책자금, 직무연수 및 투자유치 등의 후속 연계지원을 받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꿈꾸고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광주'에 선정돼 사업지원금 1억원 지원, 1년간 사무공간 무상제공, 맞춤형 성장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중진공에서는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후속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홍주 본부장은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기업과 지속 협업해 광주 지역 청년 창업 AI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청년창업가들이 지역 내 AI산업생태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올리브영서 현대차 캐스퍼 할인쿠폰 받으세요

현대차-CJ올리브영, 27일까지

현대자동차는 CJ올리브영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캐스퍼〈사진〉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캐스퍼 디 에센셜 경품 차량, 캐스퍼 할인 쿠폰, 캐스퍼 시승권과 올리브영 할인 쿠폰 등 혜택이 준비돼 있다.

올리브영 회원에게는 캐스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을 적용 받아 차량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가로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10만원권을 증정한다.

할인 쿠폰은 올리브영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차량 구매 시 적용 가능하다. 쿠폰은 이벤트 기간인 27일까지 내려받을 수 있으며, 31일까지 쿠폰을 이용해 차량을 계약할 경우 할인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캐스퍼 차량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고객은 구매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올리브영 첫 구매 고객은 캐스퍼 디 에센셜 경품 차량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캐스퍼 디 에센셜 차량을 증정한다. 올리브영 앱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올리브영 첫 구매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6.47(-50.60)
↓	코스닥	909.76(-29.91)
↑	금리(국고채 3년)	3.677(+0.030)
↑	환율(USD)	1298.50(+14.70)